

43개국 태권도선수들 '격돌'

태권도원 T1경기장서 '대한민국 대사배 대회 세계 결선' 개최식에서 정부부지사·각국 주한외교단 등 대거 참석

2019 대한민국 대사배 태권도대회 세계결선(2019 Korean Ambassador's Cup Taekwondo World Championship) 개최식이 13일 외교부 장재복 공공외교대사를 비롯한 전북도 우범기 정부부지사, 무주군 황인홍 군수, 무주군의회 유승열 의장, 태권도진흥재단 이상욱 이사장, World CSC 서현석 위원장, 그리고 주한외교단 등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권도원 T1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선수 및 심판선사와 우석대 태권도팀의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돼 43개 참가국 선수와 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축사를 통해 "태권도의

나라 대한민국, 세계 태권도 성지 무주군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이 대회가 태권도인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태권도원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2019 대한민국 대사배 태권도대회 세계결선(주최 외교부, 전북도 무주군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후원)은 태권도의 지속적 확산을 도모하고 외국인 참가자들의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을 키운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각 국 공관별로 개최된 공관장배 태권도대회 우승자 143명이 남녀 체급별 겨루기와 품새 등 부문에서 자웅을 겨룬다.

참가 선수들은 "태권도원의 위용에 깜짝 놀랐다"라며 "나라를 대표해 세계 선수들과 실력을 겨룬다는 자부심도 크지만 태권도의 나라에서 태권도의 역사를 배우며 고단 사범들의 마스터 클래스까지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꿈만 같다"라고 입을 모았다.

대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일 입국한 선수들은 서울문화체험 후 무주 태권도원으로 이동, 13일까지 교육과 경기를 치루고 15일 출국할 예정이다.

한편, 한 해 무주군에서 개최(지원)하는 태권도 대회는 6개 정도로 굳은 관내에서 개최되는 태권도 대회들이 태권도 성지의 위상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으로, 선수들의 안전 및 편의 등 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진성 기자·무주=전문선 기자



2019 대한민국 대사배 태권도대회 세계결선 개최식이 13일 태권도원 T1경기장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레바논 잡으면 4년 만에 한해 두자릿수 승리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0시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예선 역대전적 9승2무1패로 '우위'



축구 국가대표팀 이강인이 12일(현지시간) 아부다비 크리켓 스타디움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예선 레바논과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훈련을 하던 중 물을 나눠주고 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레바논 원정에서 4년 만의 두 자릿수 승리에 도전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4일 오후 10시(한국시간) 레바논 베이루트의 카밀 샤문 스타디움에서 레바논과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 H조 4차전을 갖는다.

이 경기를 이기면 한국은 모처럼 한 해 10승 고지를 밟게 된다.

한국이 마지막으로 10승 이상을 거둔 것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지휘봉을 잡았던 울리 슈틸리케 감독은 16승3무1패라는 호성적을 거뒀다.

2016년 7승, 2017년 4승, 2018년 7승으로 승수 쌓기에 애를 먹던 한국 축구는 4년에 한번 열리는 아시안컵을 맞아 모처럼 두 자릿수 승리 기회를 잡았다.

한국은 올해 초 UAE에서 치러진 아시안컵에서 4승을 챙기며 일찌감치 10승 고지를 예약했다.

이후 3월 볼리비아, 콜롬비아와의 친선전에서 승리를 추가하며 첫 7경기에서 6승을 쓸어 담았다. 호주와의 평가전(6월)과 월드컵 예선에서 2승을 보태 9승을 완성했다.

10승 고지를 눈앞에 두고 만난 레바논은 그동안 한국이 큰 강세를 보였던 상대다. 한국

은 앞서 레바논과 12차례 만나 9승2무1패를 거뒀다. 2011년 11월 원정에서 1-2로 진 것이 유일한 패배의 기억이다.

이 경기를 빼면 레바논에게 진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다고 맘 편히 원정길에 오른만한 상대는 아니다. 레바논은 앞서 치른 3경기에서 2승1패(승점 6)를 기록할 정도로 만만치 않은 전력을 과시한다. 올해 아시안컵연맹(AFC) 아시안컵에서는 북한을 4-1로 물리치기도 했다.

레바논은 일단 수비벽을 두텁게 쌓은 뒤 역

습을 노리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주로 스티플 전술을 사용하는데, 공격의 중심에는 힐랄 엘-헬웨가 선다.

엘-헬웨는 레바논이 치른 아시아예선 세 경기에서 모두 최전방을 맡았다. 지난 1월 아시안컵 북한전에서는 멀티골로 4-1 대승에 기여했다.

측면 공격수 역시 가능하지만 레바논은 엘-헬웨를 중앙 스트라이커로 활용하고 있다. 엘-헬웨는 이번이 없는 한 한국전에서도 기록될 것이 확실시 된다.

/뉴시스

호주 야구, '최장' 미국 잡았다

WBSC 프리미어12 슈퍼R서 2-1로 승리 이번 연출

약제로 분류된 호주 야구대표팀이 미국을 잡는 이번을 연출했다.

호주는 13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슈퍼라운드 미국과의 경기에서 2-1로 승리했다.

예선에서 조 2위로 올라 1패를 안고 슈퍼라운드에 진출한 호주는 일본과 멕시코에 패해 상위 라운드 진출에 실패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미국에 승리하면서 1승 3패를 기록, 미국과 동률을 이겼다.

올림픽 진출권을 노리는 호주는 한국(2승1패), 대만(1승2패)과 경쟁하고 있다. 세 팀 중 가장 성적이 좋은 팀이 올림픽 본선에 나간다. 호주는 이날 승리로 실낱같은 희망을 남겨뒀다. 호주는 대만과의 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이날 호주 선발 티머시 애서튼은 5⅓이닝 1피안타 2볼넷 4탈삼진 무실점 역투를 펼쳐 승리투수가 됐다.



호주는 13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프리미어12' 슈퍼라운드 미국과의 경기에서 2-1로 이겼다.

(사진=프리미어12 트위터 제공)

호주는 1회초 터머시 케넬리의 볼넷과 앤드루 캠벨의 2루타, 로버트 글렌디닝의 볼넷으로 무사 만루 기회를 잡았다. 이후 에런 화이트필드의 적시타로 2-0을 만들었다.

미국은 호주 투수진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고, 4안타의 반공에 그쳐 무릎을 꿇었다. 미국 선발 테너 하우크는 5이닝 2피안타 2실점 투구로 패전의 멍에를 썼다. /뉴시스

전북의 핵심 '태양광메카' 세계적인 폴리실리콘 공장 운영 | 1989년부터 30여년간 지역경제 발전에 노력 | 직·간접 고용창출 인원 2,500명 (2017년 12월 기준) | 안전하고 주민친화적 사업장 운영



OCI는
전북경제를 이끄는 대표기업이 되겠습니다

OCI 군산공장